

보도시점 2025. 7. 4.(금) 11:00
7. 5.(토) 조간

배포 2025. 7. 4.(금) 09:00

농식품부, 선제적 폭염 대응으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총력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농·축산물 생육·사육 현황 파악과 기술 지도 등으로 사전적 수급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4일(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폭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생육 및 사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각 소관 부서 및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 안전·원예·가축 등 각 분야별로 그간 폭염 피해 사례 분석과 피해 예방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컸던 원예, 시설작물 등을 중심으로 폭염 시 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축 폐사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행동 요령을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하여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하여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폭염은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물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홍보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폭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44-201-1794)

여름철 폭염 주의 농업인 안전수칙

⚠ 폭염특보 기준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기상상황 확인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수시로 확인



피부 보호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나홀로 작업 피하기

2인 1조로 움직이기



야외 논밭에 심러 설치

그늘막, 차양막 등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밀폐공간 환기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물 많이 섭취

농작업 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농작업 자제

가장 더운 12~17시에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폭염 시 농작물 및 가축관리 요령

농작물



채소·과수 공통

물대기로
적당한 토양 습기 유지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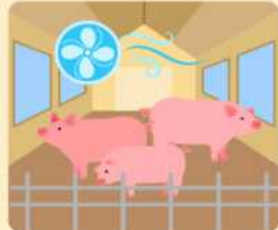
이랑 피복, 차광막 설치로
지온 상승 억제



과수

과실비대 불량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미세살수 장치 가동

가 축



축사 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단열, 차광, 송풍 실시



가축에게
깨끗한 물 충분히 공급



변질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주의

 농림축산식품부

- 4 -